

28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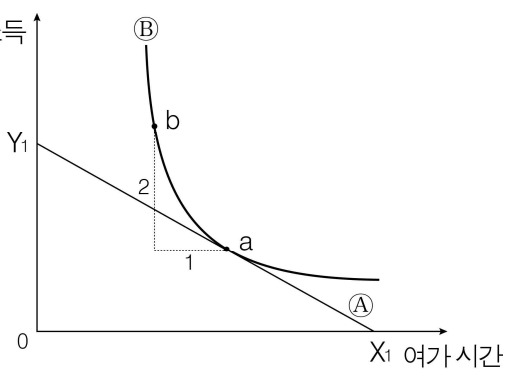
-워싱턴 어빙

국어 영역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나)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_1Y_1 을 오른쪽의 ㉡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_1Y_1 에서 X_1 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댓값이고, Y_1 은 소득의 최댓값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라)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 ㉢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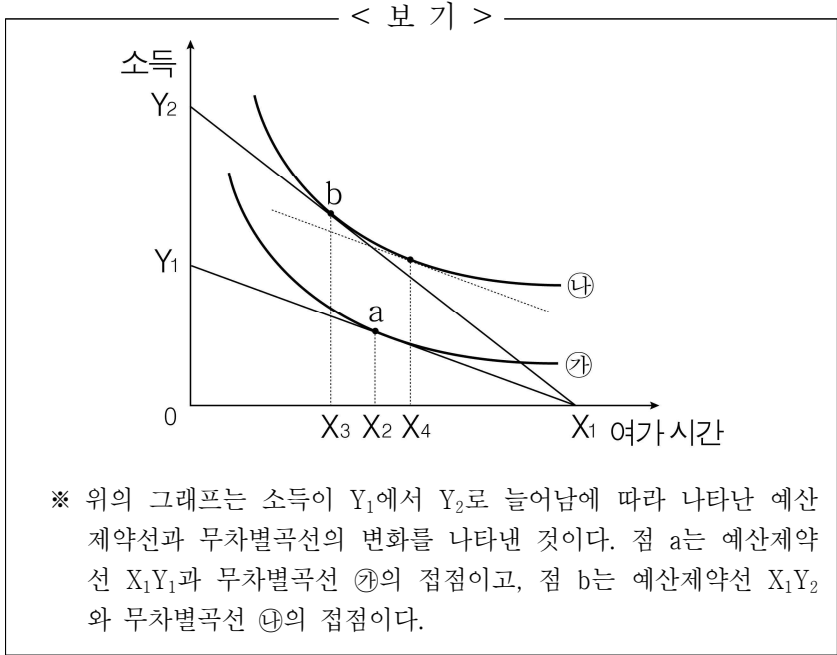
* 한계효용: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예산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무차별곡선의 개념과 함께 한계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과 시간당 임금 상승 시의 노동 공급 결정 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 영역

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 a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 ② 점 a보다 점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 ③ 예산 제약선 X_1Y_1 과 X_1Y_2 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 ④ X_4 에서 X_2 를 뺀 값은 대체효과를, X_4 에서 X_3 을 뺀 값은 소득 효과를 보여 준다.
- ⑤ 소득의 최댓값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관한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3. (다)를 토대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반면에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한다. 이 두 사람의 ‘소득-여가 선택 모형’ 그래프를 그리면,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A 씨와 B 씨의 무차별곡선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 씨보다 A 씨의 무차별곡선에서 급한 것이다. 이것은

- ①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 ②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 ③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 ④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 ⑤ A 씨와 B 씨의 소득의 한계효용과 여가의 한계효용은 같지만 한계대체율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4. ㉘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쓰겠니?
- ② 강한 공을 던지려면 허리를 잘 써야 한다.
- ③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써서 그 일을 하기로 했다.
- ④ 자식에게 쓴 돈은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 ⑤ 아랫방을 쓰는 형이 불편하다며 서로 방을 바꾸자고 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그 일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 이 편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되는 것도 이 편향의 결과이다. 이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뉜다. 동기적 설명은 우선 ‘통제감’에 대한 추구와 관련된다. 통제감이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동기적 설명에서는 자신을 지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는 자기 과시의 동기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동기적 설명에 비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 이론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즉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표상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표상은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켜, 주어진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강화시키지만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갖게 되는 표상에서는 일어난 결과만이 존재하게 되고 가능했던 다른 결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결과들에 대한 사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난 결과와 관련된 사고만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알려지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러한 설명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사후 과잉 확신의 발생에는 인과 추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후 과잉 확신의 크기는 사후 설명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 영역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추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④ 정의와 구분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사후 과잉 확신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가?
- ②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③ 잠입적 결정론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④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에서 언급되는 ‘통제감’이란 무엇인가?
- 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는가?

7.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후과잉확신편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더 약하게 나타난다.
- ②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 ④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올바른 판단과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 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결과로,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될 수 있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심리학자인 피쇼프는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예측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	
㉡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	
㉢	닉슨이 돌아온 후, 피쇼프는 같은 사람들에게 방문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었는지 다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했었다고 기억했다. 닉슨과 마오쩌둥의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은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피쇼프는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①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 ㉡에서 실제 일어난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해 답했군.
- ②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통제감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동기를 지닌 실험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난 것이겠군.
- ③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의 피쇼프의 물음에 대해 실험 대상자들이 답할 때 ㉡의 회담 결과가 실험 대상자들의 인과관계 모형을 변화시켰을 수 있겠군.
- ④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 중에는 ㉡의 회담 결과에 관한 정보가 자신 지닌 정신적 표상에 통합된 사람들이 있겠군.
- ⑤ ㉢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보인 실험 대상자들은 ㉡의 회담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은 사람들이겠군.

국어 영역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성궁을 찾은 선비 유영은 꿈속에서,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 대군의 공녀인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진다. 김 진사는 노비인 ‘특’의 도움을 받아 운영과 달아날 계획을 세우나 특의 배신으로 안평 대군에게 들키게 되고, 운영은 자결을 한다. 김 진사는 특을 불러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며 청량사에서 운영을 위한 불공을 드릴 준비를 하라고 분부하나 특은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

때는 마침 왜나무 꽃이 노랗게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볼 생각은 없었으나 공부를 핑계 삼아 청량사에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묵으며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자세히 듣게 되었지요. 분을 이기지 못했으나 특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목욕재계한 다음 부처님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린 뒤 향을 살라 합장하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운영이 죽을 당시 했던 약속이 너무도 서글퍼 차마 저버릴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특이라는 중놈으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게 하여 명복을 빌려 했었습니다. 그랬건만 지금 이 중놈이 부처님께 빌던 말을 들으니 패악이 극심하여 운영의 마지막 소원마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감히 다시 비나이다. 부처님, 운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 운영을 저의 배필로 맺어 주옵소서. 부처님, 운영과 제가 다음 생에서는 이 같은 원통함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 특이란 중놈의 목숨을 끊고 쇠로 만든 칼을 씌워 지옥에 가두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운영은 12층 금탑을 세우고 저는 큰 절을 세 곳에 세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백번 절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나왔습니다.

이래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세상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적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피 울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요, 원수 같은 중놈이 이미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하염없이 비통해하십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시는 겁니까?”

김 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대군이 몰락하여 수성궁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돌의 꽃과 뜨락의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거늘 사람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의 과실을 따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사사로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三清宮)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회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이윽고 눈물을 뿌리며 유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A]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천지가 다해도 이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와 만나 이렇게 회포를 풀었으니 전생의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선생은 저희가 쓴 글을 수습하시어 영원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망스런 사람의 입에 헛되이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김 진사가 취하여 운영에게 몸을 기대며 절구 한 편을 읊었다.

궁중에 꽃 지고 제비 나는데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간 데 없네.
한밤의 달빛 이리도 서늘하여
버드나무와 가벼운 안개는 푸른 우의(羽衣)* 같네.

운영이 이어서 읊조렸다.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띠었고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우의(羽衣): 신선의 옷.

국어 영역

9.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는 부처님에게 ‘특’의 죽음을 기원했다.
- ② ‘김 진사’는 청량사에서 ‘특’의 행적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 ③ ‘김 진사’는 ‘운영’의 재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다.
- ④ ‘김 진사’와 ‘운영’은 가끔씩 속세에 내려와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 ⑤ ‘김 진사’와 ‘운영’은 그들을 속세에 환생시키려고 한 ‘염라대왕’의 배려를 거절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운영전」은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현실이라는 외부 이야기 속에 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적장 화소(謫降話素), 남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말하게 한 발상, 삽입된 시와 서사 전개 간의 밀접한 연관, 비극적 성격 등이 잘 어우러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① 몽유자가 꿈에서 깨어난 후 발견한 책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군.
- ②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을 천상계로 설정하여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 ③ 내부 이야기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군.
- ④ 내부 이야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환을 품고 죽는 것과 외부 이야기에서 몽유자가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비극적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녀 주인공이 읊은 시는 특정 공간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 내용과 연관되어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무상감을 부각하는군.

1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오를 밝히고 있다.
- ② 보답을 암시하며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⑤ 우려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막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2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넷 사람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들소냐

< 중략 >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낀 거이고
— 정극인, 「상춘곡」 —

(나)

광영지(光影池)에서 서쪽으로 화살 한 번 쏘 만한 거리에
줄지어 있는 소나무와 어지러운 나무들을 지나가면 와룡폭포가 있다.

폭포의 바닥은 다 돌이다. 돌은 난가대(爛柯臺)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퍼져 와룡담에 이르러 그쳤다. 그 사이는 백여 보 정도이다. 그 돌의 빛은 꽤 흰데 형체가 비록 누웠기는 하나 위쪽이 약간 높고 차례로 점차 낮아져서 손바닥을 옆으로 드리운 것 같다.

폭포는 명덕동(明德洞)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나온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돌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화살처럼 빠르고 물병을 지붕에 거꾸로 얹어 놓은 것처럼 급히 쏟아진다.

물이 흘러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돌을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내리는 기세가 비로소 급하게 된다. 돌은 물의 맹렬한 두들김을 견디지 못하여 가운데가 호박같이 되었다. 구슬이 튀고 눈이 물 끓듯 세차게 일어난다.

그 넘쳐흐르는 나머지가 흩어져 연못이 되었으니 흔들리며 움직여 맑고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며 빨래를 할 수도 있다. 물과 돌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공을 들인 보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여름철에 비가 크게 내리면 폭포는 부르짖고 성냄이 천둥벼락같다. 그 기세는 돌을 걷어 가지고 달아날 것 같다. 뿔뿔이 달리는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 끝에 흰 무지개 같은 무리가 가끔씩 있어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옛날에는 양쪽 언덕에 걸쳐 정자가 있어 물이 난간 아래로 흘렀는데, 이것이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무너진 지

국어 영역

가 여러 해 되었다. ㉔ 지금도 남은 주춧돌 너댓 개가 기울어 지거나 혹은 선 채로 있어서 오히려 옛터를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산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 늦게 밥을 먹고 나면 커다란 샷갓을 쓰고 새로 지은 학창의를 입고 막대기를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연못가의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덕경』 몇 장을 읽는다.

어찌다가 팔을 베개 삼아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 산에 해가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이 어슴푸레 깨어서 나무 사이의 하늘을 쳐다보면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하늘빛이 보인다. 패옥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저녁 새가지지를 돌며 날아 지저귀는 것이 들릴 뿐이다.

이때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잇는다.** 어찌 연못과 같은 사물에 노니는 것이겠는가. ㉕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니는 것이 아니다.

— 채제공, 「와룡폭포기」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숲.

* 미음완보: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닐.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대상을 관찰하여 양면적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3. ㉔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㉔: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 ③ ㉔: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㉕: 과거를 회상하며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에는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이 있다. 유거는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으로 삼아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거가 나타난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 체험을 보여 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유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동반한다. 「상춘곡」과 「와룡폭포기」는 이와 같은 유거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의 ‘수간모옥’은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무릉이 갓잡도다’는 작가가 유거 속에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은 작가가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저 밭’과 (나)의 ‘연못’은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승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흥(興)이익 다를소냐’와 (나)의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잇는다.’는 작가가 유거를 통해 느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1779년 2월 채제공은 명덕동으로 이사하였다.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산수를 즐기며 여유와 안정을 찾았다. 채제공은 와룡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특히 좋아했는데, ‘난가’가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인 ‘학창의’를 입었고, 자주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도덕경』을 탐독했다.

- ① 신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낫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 준다.
- ② 신선의 품격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여 준다.
- ③ 신선의 땅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
- ④ 신선의 삶을 동경하며 생활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를 보여 준다.
- ⑤ 신선의 생활과 세속의 생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을 보여 준다.

해설

②④ ④④
②①①③②
②①⑤④④

*3번은 ①~⑤ 복수정답

[1~4] (사회) 김환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

이 글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제시한 ‘소득-여가 선택 모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출제의도]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나)에서는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라는 예산제약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제약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2. [출제의도] 글의 개념과 원리를 시각 자료에 적용한다.

(라)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보기>의 그래프는 소득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짐에 따라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무차별곡선도 이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차별곡선의 이동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는데, 무차별곡선 ㉔와 예산제약선 X_1Y_1 의 접점에서와 같은 기울기 값을 가지는 점(X_2 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이 무차별곡선 ㉔ 상에서 X_4 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X_4 에서 X_2 를 뺀 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도 동일한 소득이 유지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위 시간당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즉 X_4 에서 X_2 를 뺀 값은 소득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이 그래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으므로, X_4 에서 X_3 를 뺀 값만큼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양상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체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X_4 에서 X_3 를 뺀 값은 대체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점 a에서 무차별곡선 ㉔의 접선은 예산제약선 X_1Y_1 과 같다. 무차별곡선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을 나타내고,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 a에서는 무차별곡선 ㉔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예산제약선 X_1Y_1 의 기울기이므로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②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㉔보다 ㉑가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점 a보다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⑤ 소득의 최대값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관련 있는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3. [출제의도] 글의 개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 의하면,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하지만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하며, 이에 따라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A 씨는 여가의 한계효용이 소득보다 큰 반면, B 씨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여가보다 커서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른 것이다.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크면, 여가 1단위와 소득 2단위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 한계대체율이므로, 앞서 제시한 예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반대로 여가의 한계효용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크면, 여가 2단위와 소득 1단위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1/2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A 씨의 무차별곡선과 B 씨의 무차별곡선 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 씨의 무차별곡선이 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A 씨는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고, 그에 따라 A 씨의 무차별곡선이 B 씨보다 급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도리에 맞는 바른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몸의 일부분을 제대로 놀리거나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사람을 어떤 일정한 직위나 자리에 임명하여 일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5~8] (인문) 최인철, 『사후 과잉 확신 편향과 인지 과 추론』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과 그 발생 원인을 서술한 글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는 착각을 유발하며,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누어진다.

5.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여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그 발생 원인을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동기적 설명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을 ‘통제감’과 자기 과시 동기와 관련짓고 있으며, 인지적 설명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보는 ‘잠입적 결정론’과 관련짓고 있다.

6.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편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7. [출제의도]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오답풀이] ②, ④ 5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감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③ 3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 알려져 있다. ⑤ 1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되는 것도 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결과이다.

8. [출제의도]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실제 사례와 연관지어 이해한다.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사람들이 통제감이 약해서 실제 일어난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동기적 설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동기적 설명은 통제감에 대한 추구, 자기 과시의 동기를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④ 3문단에서 인지적 설명은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즉,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새로운 표상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표상이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9~11] (고전소설) 작자미상, 「운영전」

이 작품은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몽유록 형식의 애정 소설로, 몽유자인 유영에 대한 외부 이야기와 운영과 김 진사에 대한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소설로서는 드물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이는 이 작품은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운영이 자결한 후 김 진사는 ‘특’에게 운영을 위한 불공을 부탁했으나 특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자 부처님에게 특의 징벌을 기원한다. 이로 인해 특이 우물에 빠져 죽고, 김 진사는 세상사에 뜻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김 진사가 운영의 재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1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몽유자인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난 것은 지상계이다. 운영과 김 진사가 옥황상제의 용서로 천상계에 복귀한 후에도 때때로 회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속세로 내려오는데, 전생의 인연이 있어 유영이 두 사람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③ 이 글의 앞부분에 김 진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④ 운영과 김 진사가 내부 이야기에서 한을 품고 죽는 것과 유영이 외부 이야기에서 망연자실하다가 침식을 폐하고 자취를 감추는 결말은 이 작품의 비극적 성격을 나타낸다. ⑤ 수성궁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을 보고 운영과 김 진사는 슬퍼하다가 시를 지어 슬픔과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A]에서 김 진사는 유영에게 자신과 운영이 쓴 글을 영원히 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 진사가 보답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15] (고전 시가 복합) 정극인, 「상춘곡」/체제공, 「와룡폭포기」

(가) (고전시가) 정극인, 「상춘곡」

이 작품은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태인의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는데, 안분지족하는 여유 있는 정신세계가 나타난다.

(나) (고전수필) 체제공, 「와룡폭포기」

이 작품은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 주위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작가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세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깨달음이 잘 나타나 있다.

12.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도화’ 등 봄이라는 계절감을 부각하는 소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와룡폭포의 모습, 물줄기, 연못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㉔는 폭포의 거센 물줄기로 인해 사라진 정자의 옛터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가)의 ‘저 틈’는 화자가 ‘무릉’처럼 여긴 곳으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이 아니다. (나)의 ‘연못’도 작가가 노닐며 즐기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므로, 이 역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이 아니다.

15.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가의 태도를 파악한다.

<보기>로 볼 때 (나)의 작가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명덕동에 은거하며 신선의 삶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㉕은 작가가 은거지의 자연 속에서 신선의 삶을 동경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천상의 즐거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작가가 무아지경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